



## 대보해운

나눔의 사랑 실천



대보해운(대표 김창중, 노재영) 임직원 일동은 지난 12월23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최근 해운경기 악화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모금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대보해운은 이 같은 물질적 기부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전 임직원이 기름 유출 사고가 난 태안을 방문해 오염제거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 대한통운

3인 각자 대표이사로

대한통운은 12월16일 박삼구, 이국동 각자 대표이사에서 박삼구, 이국동, 이삼섭(금호렌터카 대표이사)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변경사유는 영업양수도에 의한 렌터카사업부 위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통운은 자사가 발행하는 사보 '대한통운' 지가 '200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최고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R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행사는 기업문화 창달과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한편, 사보 '대한통운'은 지난 1963년 창간됐으며 전 임직원의 가정과 고객사, 전국 도서관 등에 택배로 배송되고 있다. 시상식은 12월1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대한해운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수상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이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을 수상했다.

대한해운은 사단법인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신문이 공동 후원한 2008년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가장 신뢰받는 기업 시상식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대한해운은 지난 2006년에 이어 한국 최고의 기업에 수여되는 상들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꾸준한 창 의와 노력으로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



시켜 사회에 공헌하고 책임과 윤리 경영을 통해 주주와 고객, 종업원이 만족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해운은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전문 수송선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한해운은 지난 40년간 국내 최대의 전용 선사로서 성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건화물선 부문과 LNG선 부문 이외에 유조선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선대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 강남 신사옥으로 이전해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해운업계를 리딩하는 선두주자로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경영인협회는 2003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가장 신뢰받는 기업을 선정·추대하는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학계, 재계, 언론계의 인사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현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명 구성돼 있으며 최종 심의해 수상업체를 선정했다.

한편, 사내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해운은 2009.1.1일부로 조직개편과 동시에 임원 업무 위축 및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차별화 된 서비스와 조직의 역력강화를 위해 기존의 기획관리본부를 기획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로, 영업본부를 전용선 영업본부와 벌크선 영업본부로 분리하였다.

또한 재무팀을 자금팀과 회계팀으로, LNG기술팀을 탱커관리팀과 해사기술팀으로 분리개편하여 자금 운용능력 극대화 및 외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선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를 강화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연료구매 및 화물 적-양하 등 전문적인 업무분야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운항지원팀을 신설했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업무 위축 및 직원 승진-보직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보직 변경]

△영업총괄 부사장 박재민 △전용선 영업본부 본부장 상무 박상용 △벌크선 영업본부 본부장 상무 조운형 △보험법무팀장 상무 송관영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상무보 김철봉 △기획관리본부 본부장 겸 안전품질관리자 상무보 안계혁(기획팀장)

**STX팬오션**  
LNG 수송사업에 진출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LNG 수송사업에 진출했다. STX팬오션은 지난 12월19일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인 'STX KOLT' 명명식 행사를 갖고 LNG수송사업을 개시했다.

이번에 건조된 LNG선은 오는 12월말부터 연간 약 70만톤씩 20년동안 예맨으로부터 수입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장기도입 물량을 운송하기 시작했다. STX팬오션은 대략 이 사업으로 연간 약 2,000만달러, 총 4억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팬오션은 내년에도 LNG선 1척을 추가로 인 도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 정이다.

이와관련, STX팬오션은 "이번 LNG사업 첫 진출 의 여세를 몰아 비벌크 사업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 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사 는 올 한해 도입한 선박 9척을 모두 비 벌크선으로 채웠다.

이번 LNG선을 포함해 2,700TEU 컨테이너선 2 척, 탱커선 5척, 그리고 반잠수식 Heavy Lift(자항 선) 1척 등 향후 STX팬오션의 비 벌크사업을 주도 할 핵심자산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급격한 벌크 시장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2,7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신조 인수하여 부 산-중국-동남아 황금노선에 전격 투입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STX 진해와 대련 조선소를 오가면 서 블록 해양 구조물을 수송할 Heavy Lift를 진수 했다. 또 신조 탱커선 5척을 인도받아 운용을 개시 하는 등 비벌크 사업 확대를 위한 진용을 공고히 구축했다.

2009년에도 자동차 6,700대를 실을 수 있는 대 형 자동차선 2척을 포함해 LNG, 탱커선 등 비벌크 선박 10여 척을 인도받아 비벌크 고부가 해상운송 사업에서 수익창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STX팬오션 김대유 사장은 "현재의 비 벌크사업 비중 10%를 2010년까지 30%로 끌어올려 'Global Top 5 해운선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TX팬오션은 12월9일 수협중앙회가 개최 하고 농림수산물부가 주관하는 '제4회 올해의 도 시-어촌 교류상'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수 상했다.

도시-어촌 교류상은 도시와 어촌간 교류활성화 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도시기업과 어촌의 상생기반을 구축 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STX팬오션은 2006년부터 충남 서산수협 도성어 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특산물 구입, 장학금 지원, 인근 학교 교수기자재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서울 초청, 회사 직원과 가 족들의 어촌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 시행 한 모범적 사례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 하게 되었다.

지난 2006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STX팬오션은 이날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자 매어촌계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림수산물부장관상에는 우리은행, 삼성생명, 금호피앤비화학,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4개사가 수상했다.

## 한진해운

신임사장에 김영민 부사장



한진해운 김영민 부사장이 2009년 1월1일자로 한진해운 대 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진해운은 박정원 사장이 2009년 1월1일자로 대표이사직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김영민 총괄부사장을 대 표 이사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12월17일 밝혔다.

신임 김영민 사장은 연세대, 미국 노스이스턴 (Northeastern)대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주)대 우, 씨티은행을 거쳐 2004년 1월 한진해운 부사장 으로 한진해운호에 승선했으며 5년만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2009년 1월1일부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는 박정 원 사장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점에 회사를 떠나 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후배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자 용퇴를 결심했다. 그 동안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굳게 일치단결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진해운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나 또한 회사의 고문으로서 최선을 다해 한진해운의 발전을 위해 돕겠다"며 심정을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2009년 1월1일자로 기획관리 그룹장이었던 이원우 전무를 컨테이너선 SBU(Strategic Business Unit)장으로, 벌크선부 SBU(Strategic Business Unit)장이었던 백대현 상무를 벌크선 SBU(Strategic Business Unit)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한진해운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과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어려운 해운시황을 더욱 큰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金永敏) 신입사장 약력] △1955년 3월 서울 성북구 출생 △1973년 경기고 졸업 △1977년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7년~1978년 (주)대우 수출팀 △1981년 미국 노스이스턴(Northeastern)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1년~2001년 씨티은행(Citibank) 근무(한국, 홍콩, 태국, 미국) △2001년 9월~2003년 미국 TTI 근무(롱비치 터미널 운영 법인) △2004년 1월 한진해운 부사장, 관리본부장 △2004년 10월~ 2008년 12월 총괄부사장 △2009년 1월 사장(대표이사 내정)

[임원 승진인사(2009년 1월 1일)] △부사장 조용민(趙容敏) △전무 최건식(崔健植) △상무 성철제(成喆濟), 신광호(申光鎬), 정부일(鄭富日), 이윤근(李倫根), 송영규(宋永圭) △상무부 강찬영(姜贊永), 김규경(金奎京), 박진기(朴進基), 손영호(孫英浩), 정윤한(鄭潤漢), 정재순(鄭在淳), 차순창(車淳昌),

최민영(崔珉永)

[사이버로지텍 임원승진(2009년 1월 1일)] △상무부 유병록(俞炳赫)

## 흥아해운

### 47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흥아해운(www.heung-a.co.kr, 대표 이윤재 회장)은 12월8일 서울 문정동 본사 강당에서 창립 4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윤재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는 해운 기업들에게 크나큰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으나, 회사는 이와 같은 시황 악화에 대비하여 선대 개편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영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국면에 대해서는 이를 '기회'로써 활용하여 더욱 공격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돌파해 나가야 함을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뒤, 회사는 보다 거시적 관점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어떠한 혹독한 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기반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상, 모범사원상, 최우수해상직원상, 우수해상직원상 및 사내교육프로그램인 HR 아카데미 성적우수상, 코리아헤럴드참여상 등을 부상과 함께 해당 직원들에게 시상했다.

HR 아카데미는 해운물류의 종합적인 지식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마인드를 함양한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사내교육프로그램으로서 주1회 16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해운시황, 해운경제, 정기/부정기 용선계약실무, 선박금융, 무역실무, 컨테이너운용, 해상보험, 케미컬탱커의운용, 비즈니스 영어 등 해운지식 전반에 걸쳐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업무능력 향상 및 실무적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 취임



이채익(李採益·53) 울산항만공사 제2대 사장이 12월15일 울산시 남구 달동 사옥 4층 대

회의실에서 직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채익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와 작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공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은 내부행사로 진행된 관계로 박종근 항만위원장, 김동수, 강신률 항만위원과 임직원 그리고 일부 외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 사장은 15일 취임식 행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방문 등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오는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울산항만공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총장에 오세경 국장 선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은 12월15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세경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5월 전임 이현택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연맹 지도국장이었던 오세경 국장이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해 오다 금번 제2차 이사회의 서면결의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신임 오세경 사무총장은 1982년부터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의 훈육주임 및 기획관리과장을 시작으로 본부 훈육연수부장을 거쳐 지도국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5년간 연맹발전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왔다. 하위직급에서 시작하여 사무총장직에 오른 오 사무총장은 그 간의 업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맹업무수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실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실무위원장, 한국수상레저연합회 이사, 대한드래곤보트협회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청소년활동육성에 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GOLD MEDAL]을 수상한 바 있다.

오 사무총장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연맹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전임 사무총장 및 임직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통해 연맹이 목적인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 목적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분들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